

기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완강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맡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의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한다. 그만큼 모든 사회 현상들이 급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표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족기능이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는 전통사회의 가족기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일 세대 내지는 단독세대 가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령,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삶을 함께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매우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그래서 과거 개발독재 정권 시절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균형발전을 주장했던 것이다.

안정이 도외시된 체 성장 위주로만 독주하게 되면 이들이 균형을 잃고서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 리더자들은 이를 도외시켰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는 수많은 병리현상을 유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 문제화되어 우리들의 체제를 위협하기까지 한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 체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특히 이를 구성해주는 최초의 결합체인 부부사이의 연성화는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한 지붕 밑 이혼 부부 내지는 이혼으로 치달을 때,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녀 양육 및 노인부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곧 청소년문제, 한 부모 가족 문제, 빈곤 문제 등 여타의 문제들로 연쇄적 파생을 거듭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부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만은 이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지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부정 불확실성의 원리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될 때, 남편으로부터의 적절한 양육비 수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된다.

만약 그것을 제 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먹구름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여타의 교육 또한 한쪽의 성만으로는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의 모방모델 한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은 많은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

고 이에 못지않게 급부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기능 약화에 의한 노인 문제다.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자녀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정성을 다해왔다. 자녀를 하나의 애정의 상징이자 재산의 개념으로 양육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은 그러한 노부모를 백안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반증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증가일로에 있다. OECD국가 중에서도 1위다. 그 주요 원인은 폭력과 방치 그리고 가난과 질병, 외로움 등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족기능이 급속히 약화 되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우리모두는 무너져가는 가족기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손길,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응급환자를 살리는 힘은 전문 장비나 구급대원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고 순간 가장 먼저 환자 곁에 있는 '목격자', 바로 군민 여러분이 더 큰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119가 도착하기 전 주변인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는지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해남군은 넓은 농경지와 산림, 해안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외곽 마을이나 농작업 현장에서는 구급대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심정지·호흡곤란 등 급성 질환 발생 위험도 더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CPR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곧 생명선이다”라는 말이 있

습니다. 실제로 최초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생명을 살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반대로 초기 대응이 늦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아닌 '즉시 행동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남소방서는 군민이 주저하지 않고 CPR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생·주민 대상 체험교육, 의용소방대 연계 교육,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마을회관 방문 이동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협회·보건소·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심정지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생명 지킴이는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손으로 30회의 흉부압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내가 시작한다”는 용기가 곧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힘입니다. 해남소방서는 군민과 함께 더 안전한 지역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해남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음력 10월 30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detail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